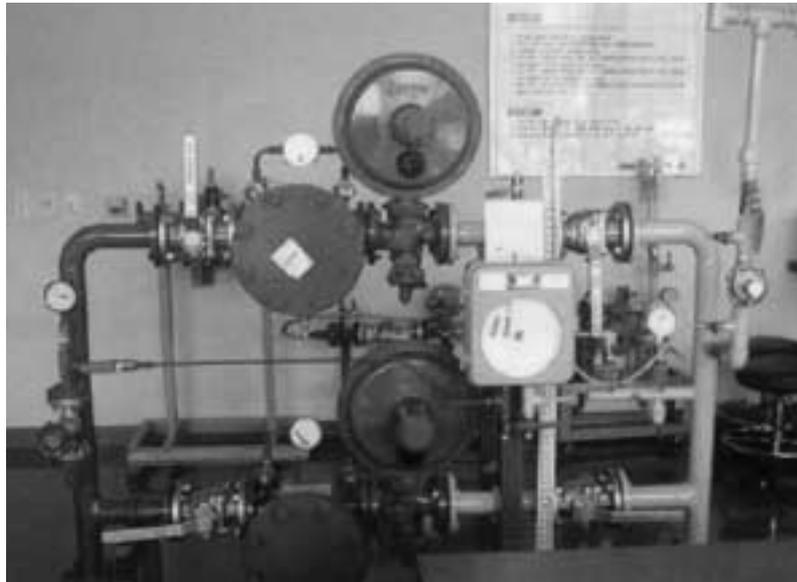


일부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당행위 방지 재건의

- 2006년도 가스시설시공업 경영 및 실태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가 가스시공업계의 육성발전과 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가스시공업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및 현안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영의 가장 큰 애로점은 과열경쟁에 의한 저가수주가 90%의 응답률을 보여 과열경쟁이 경영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부 도시가스사로부터 강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고, 일부 도시가스사가 판매하는 제품구입 및 특정제품 사용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도시가스사로부터 법령에 없는 기술검토 요구 및 기타 과도한 서류제출을 강요받은 사실도 50%에 육박해 가스시공업계 민원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등 관련기관에 개선을 촉구토록 건의했다. [편집자 주]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공자에게 법령의 근거가 없는 기술검토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거나 자체시방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월권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도 임의로 과다한 서류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공자의 인력추가 소요 및 공기지연 등 시공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도시가스시설의 공사와 관련 현행 법령에도 없는 가스시설의 점검(공급전 안전점검)을 빙자하여 부당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시공 및 가스공급 지연 등으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물품 강매(정압기, 메타기, 가스보일러 등) 및 현금결제 강요로 인하여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이러한 부당행위가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이같은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해 산업자원부에 건의함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공사와 관

련 부당행위 방지 요청을 지시함으로써 다소 시정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인 흐름이 점차 투명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가스사업자들의 부당행위 만연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등 관련기관에 정책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함은 물론 이의 건의에 들어갔고, 가스시공업계의 권익보호와 기업경영 향상에 기여토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1) 조사목적

가스시공업 회원사의 기업경영 및 현안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스시공업계의 육성발전과 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분석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부 등 관련기관에 정책개선을 건의하여 업계의 권익보호와 기업경영 향상에 기여토록 적극 활용코자 하는데 있다.

2) 조사내용

가스시공업계의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을 비롯 가스 시공관련제도분야, 건설업관련제도분야 및 수주, 시공인력분야 등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행위와 시공감리업무 및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업무 등에 관하여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이번 실태조사는 2006년 4월말 현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회원을 대상으로 조사기간은 2006년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13일간 이었으며 자체식 설문지 회수방법을 사용, **총 811개사 조사 대상업체 중 27%에 해당하는 223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②

□ 주요 설문 내용

▶ 가스시공업을 경영함에 있어 가장 애로부문을 순위별로 적어 주시겠습니까?

응답업체수 : 222개사

1 순 위 : ④과열 경쟁에 의한 저가수주(199개사)90%

2 순 위 : ⑤도시가스사업자의 월권행위(17개사) 7%

▶ 가스시공업자간의 과당경쟁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응답업체수 : 215개사

① 시공능력 및 등록조건강화(149개사) 69%

▶ 귀사는 도시가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응답업체수 : 219개사

① 있다(123개사) 56%

▶ 귀사는 도시가스사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 가스시공관련 특정제품 및 자재에 대하여 강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응답업체수 : 215개사

① 있다(102개사) 47%

▶ 귀사는 도시가스사로부터 특정제품(자재)의 강매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떠한 제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순위별로 적어 주시겠습니까?

응답업체수 : 104개사

1 순 위 : ⑤정압기(68개사) 65%

2 순 위 : ③가스보일러(20개사) 19%

3 순 위 : ①가스메타기(13개사) 13%

▶ 귀사는 도시가스사로부터 제품에 대한 강매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중에서 구입 시의 결재조건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응답업체수 : 102개사

① 현금결재 강요(94개사) 92%

▶ 귀사에서는 가스사용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등을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도시가스사로부터 법

령에 없는 기술검토요구 또는 검사입회를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응답업체수 : 205개사

① 있다(94개사) 46%

▶ 귀사에서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특정가스사 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시가스사로부터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출서류 이외에 도시가스담당직원 임의로 과도한 서류제출을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응답업체수 : 202개사

① 있다(93개사) 46%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시 도시가스사업법령 이외에 도시가스사의 자체시방에 따르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응답업체수 : 202개사

① 있다(116개사) 57%

▶ 도시가스사업자의 제품강매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응답업체수 : 136개사

- ① 시공업체에 선택의 기회부여(13개사) 10%
- ② 특정업체의 제품사용권유(42개사) 31%
- ③ 무조건 해당도시가스사가 판매하는 제품구입(64개사) 47%
- ④ 기타(17개사) 12%

▶ 만약 타 메이커 제품으로 시공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응답업체수 : 132개사

- ① 가스공급 지연 및 거부(52개사) 40%
- ② 법령에 없는 과도한 서류요구(27개사) 20%
- ③ 기타(53개사) 40%

토막 상식

‘퇴’ 보다 ‘고’ 가 낫겠네 - 퇴고

어떤 문장을 창작할 때 여러 번 생각해서 고치거나 다듬는 일을 ‘퇴고 推敲’라고 한다. ‘밀 퇴(推)’자와 ‘문두드릴 고(敲)’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이 말은 중국 당나라 시인 가도 賈島로부터 시작되었다. 가도의 서경시 敘景詩 중에 ‘승고월하문 僧敲月下門’, 즉 ‘스님이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린다’라는 시구가 있었는데, 처음 가도가 이 시를 지었을 때는 ‘승고월하문’이 아니라 ‘승퇴월하문’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 봐도 ‘승퇴월하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가도는 ‘스님이 달빛 아래 문을 밀다’에서 ‘밀다’를 ‘두드린다’로 바꿀까 말까 끝없이 망설이고 있었다. 가도는 그렇게 ‘퇴’로 할지 ‘고’로 할지 정하지 못한 채 하루는 노새를 타고 거리로 나갔다. 노새 위에서도 그는 그 생각만 하다가 그만 당대의 문호인 ‘경운’의 행차를 침범하고 말았다. 경운 앞에 끌려간 가도는 ‘퇴로 할까, 고로 할까’를 생각하다가 그랬다고 변명했다. 경운은 크게 웃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조언을 했다.

“그건 ‘퇴’보다 ‘고’가 낫겠네.”
 가도는 시구에서 ‘퇴’자를 ‘고’자로 바꿨고, 그 후 그들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이것이 ‘퇴고’의 유래이다.
 ‘퇴고’에 대한 일화는 참으로 많다.
 중국 송나라 때의 시인 소동파는 「적벽부」를 지었을 때 친구가 며칠 만에 지었냐고 묻자 “며칠은 무슨 며칠? 지금 단번에 지었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리 밑에 불룩한 데를 들춰보니 여러 낱을 두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한 초고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문호 막심 고리키도 문장이 거칠다는 비평을 듣고 어쩌나 퇴고를 해 대는지, 그를 보다 못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렇게 자주 고치다간 ‘놓았다, 사랑했다, 결혼했다, 죽었다’ 이 네 마디밖에 안 낫겠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